



▲ 총기 45년 호국안민기원법회

##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사 회향

### 7월 17일 호국안민기원법회 단양에서 전 교도 동참

불교충지중의 전통적인 수행법인 하반기 49일 불공 및 조상 영식과 나라 안정을 위한 불공이 오는 7월 15일 회향한다. 지난 5월 28일부터 총본산 총지사를 비롯한 전국 서원당에서 부국강병 국태민안의 서원과 업장 소별, 조상 영식 서원으로 49일간 봉행되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호국안민기원법회 회향일을 맞아 “호국안민기원대법회는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과 유주무주고혼 영식 그리고 모든 일체중생의 해탈을 위한 법회이기도 하며, 또한 모든 중생들과 자연을 보호하고 보살펴주는 자비의 정신을 되새기는 법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다시 한번 각성하시어 이 법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완전한 해탈을 이룰 수 있기를 비로자나 부처님께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며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한 서원

발원을 했다.

충지중의 진호국가불사(鎮護國家佛事)는 ‘외적의 침입이나 환란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불공’ 이다. 그 발원은 삼국시대부터이며 종조 원정 대성사는 “수호국계주다라니경” 을 근거로 1975년 진호국가불사 의례와 “옴흠야호사” 진언을 제정했다. 총기 20년(1991년) 당시 목정 종령은 상반기 49일 불공은 ‘자녀 잘되기 서원불공’ , 하반기 49일은 ‘현재 부모에 효수하고 선망부모 해탈 서원불공’ 으로 제정했다. 또한 이번 불공은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다음날인 7월 17일에 전 교도가 동참하여 단양 살내 체육관에서 ‘호국안민기원대법회’ 가 봉행된다. 호국안민과 선영에 대한 서원으로 봉행되는 이 법회는 부지불식간에 지어온 과보를 소멸시키는 자기실천법도 포함되어 있다.

### 지면안내

- |                            |                   |
|----------------------------|-------------------|
| 1면 중원사 수행환경 파괴하는 불법 용지변경   | 5면 밀교경전, 중국불교 옛보기 |
| 3면 서울·경인 교구 관성사 상량 지진불사 봉행 | 6-7면 관음사 탐방 및 신행담 |
| 4면 지상설법                    | 8면 밀교 연재, 후기 밀교   |
|                            | 9면 동해중 소식, 역삼한담   |
|                            | 11면 윤달은 좋은 달      |

## 중원사 수행환경 파괴하는 불법 용지변경

### 괴산 군청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어



▲ 사진①-불법으로 조성된 택지 사진②-계곡으로 내려가는 측대 사진③-불법으로 조성된 택지에 만근 인공 구조물(연못 추정)

충지중 집중 수행도량 중원사 인근 토지가 불법적으로 용도가 바뀐 것이 확인됐다. 지난 2년 전부터 중원사 뒤편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9-14번지와 18번지에서 일어난 측대 공사와 택지 기반 시설 공사가 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공사임을 군청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

6월 21일 중원사 현장과 군청 인허가 담당자를 취재한 결과 현재 진행 중인 중원사 뒤편 농로공사는 2016년 5월에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처음 군청에 접수되었다. 주민들의 농경지 출입이 어려워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농로 신설 100미터에 예산 2,000만원으로 군청에 접수되었다. 그 후 3개월이 지난 2016년 8월에 같은 구간에 대한 민원이 다시 접수됐다. 이번에는 공사 구간 200미터에 예산 4,500만원으로 늘어 접수됐다.

주무부서인 안전건설과 토목팀 주무관은 이를 예산 담당부서에 넘기고 2017년도 괴산군 예산 심의에 반영하여 금액을 확보했다. 그러나 현재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구간은 불법 택지가 조성된 이평리 359-14번지와 18번지의 진입로 공사로 농경을 위한 도로로 보기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군청 토목팀 주무관은 소규모 민원 경우에는 괴산군 전체에서 연간 약 150여건이 발주되고, 이를 시행하는 데는 면사무소를 통해 올라온 지역 주민들이 올린 건의서와 금액을 근거로 현황 파악만 하고 예산부서로 넘겨 예산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359-14번지와 18번지가 지목상으로 ‘전’ 으로 표시 되었는데 2년간의 하수도 관계 공사까지 마친 대규모 택지로 변경된 현황은 토목팀의 현장 조사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안전건설과 토목팀은 이평리 359-14번지와 18번지 토지 현상변경은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소관이라 자신들은 현상 변경에 관한 인.허가는 관여하지 않고,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 길인 지만 파악하고, 또한 산림청의 소방로를 겸한 농로 공사를 시행한다는 입장

이다. 괴산군청 농업정책실 농업기반팀 주무관은 이평리 359-14번지와 18번지에서 지난 2년 간 이루어진 택지 기반 조성사업에 대해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일체의 신고나 인.허가 절차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확인했다. 명백한 불법 공사임이 드러났다. 이미 지역 주민들은 이평리 359-14번지와 18번지 펜션을 신축 할 예정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로 공사를 주민 민원을 이유로 시행하는 것은 개인 소유의 펜션 예정지의 진입로를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2017년 괴산군 안전건설과가 시행하는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총 44억 원이다. 이중 중원사 뒤편 농로사업 같은 5,000만원 이하의 사업은 안전건설과의 재정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타당성 검토도 거치지 않고 강행했다.

또한 괴산군은 농지 전용에 관한 감독권을 포기했다. 지난 2년간 이평리 359-14번지와 18번지 지목 ‘전’ 으로 된 토지의 대규모 토목 공사도 인지하지 못한 점은 행정 업무의 직무 유기에 해

당하는 것으로 탁상행정의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계 언론들은 이에 대한 정확한 조치 사항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후속 취재를 내 보낼 계획이다.

괴산=김종열 기자

###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시다.  
둘째, 정제(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시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弘布)합시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 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시다.

##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호국안민기원 대법회

호국안민기원 대법회는 고통받는 중생들을 해탈로 이끌고  
소외받는 이웃을 돕는 자리아타행의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금번 법회에 수회 동참하시어 업장소멸과 소원성취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일 시 총기 46년 7월 17일(월)

장 소 단양 문화실내체육관



불교충지중



## 진각종 창종 70주년, 총인원 성역화 불사 회향

6월15일 총인원 성역화 회향 헌공불사



▲진각종 총인원 성역화 불사 회향

진각종(통리원장 회성 정사)은 6월 1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총인원 마당 특설무대에서 ‘총인원 성역화 회향 헌공불사’를 봉행했다.

이날 회향 법회에는 진각종 총인 회정 정사, 통리원장 회성 정사 등 진각종 스승들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 대가종 총무원장 만정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정문 스님,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부산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김영배 성북구청장, 오영훈·박준영·신용현 국회의원, 선상선 불교방송사장, 신익섭 교수불자회장, 김건식 경희대 병원장 등 종단 스승과 신교도, 불교계 대표자, 정·관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법회에서는 진각종 종도들의 서원을 담은 강도발원에 이어 현정원장 법정 정사는 경과보고에서 “단순히 종교적 장엄성을 더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종단의 미래적 실천과제가 공간적으로 수용되도록 기획했으며, 종단의 핵심교리인 비로자나불, 아축불, 보생불, 아미타불, 불공성취불 등 오불을 총인원 터에 관하는 배치로 상징성을 더했다”고 설명했다.

통리원장 회성 정사는 기념사를 통해 “총인원이 자리 잡고 있는 이터전은 진언행자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자 귀의처이며 안식처인 성스러운 곳”이라며 “진각 100년을 향한 진언행자들의 새로운 발심과 정진을 부탁드리며 밀교종흥과 한국 불교의 흥왕, 한반도 평화통일과 국가발전을 서원하자”고 당부했다.

을 서원하자”고 당부했다.

각계각층의 축사도 이어졌다. 먼저 한국 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은 부회장 홍과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총인원 성역화 불사를 회향하는 오늘은 진각종이 대사회적 실천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전기를 알리는 시대의 출발점”이라고 축하했다.

문재인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 김제원 중무실장,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내외빈이 축전과 화환으로 축하를 전했다.

이날 회향법회를 봉행한 진각문화전승원은 2007년 전승원건립추진팀 발족을 시작으로 본격화 됐으며, 2012년 12월 완공했다. 진각복지사업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진각복지센터는 연면적 4,430㎡(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2009년 완공했다. 2013년에는 성지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진각문화국제체험관과 탐주유치원, 지하주차장의 건립을 추진했다.

종단의 교화영역을 해외로 넓히고 청소년 포교의 상징이 될 진각문화국제체험관은 연면적 5,663㎡(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이며, 지역 교화의 산실이 될 탐주유치원은 연면적 1,124㎡(지상 3층) 규모이며, 부속공간인 지하주차장은 사무동인 7,8동을 포함해 연면적 5,752㎡ 규모로 2017년 5월 완공했다.

## 법화종 제12대 종정 도정 대종사 추대

창종 제71주년 기념법회도 함께 봉행



▲법화종 종정 추대 법회

법화종 제12대 종정에 도정 대종사가 추대됐다. 법화종(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6월 4일 통영 안정사에서 종정 추대식과 창종 7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인선 정사(총지종 통리원장), 진언종 혜천 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혜각 스님, 일봉선

교종 총무원장 경원 스님 등 주요종단 임원 스님들과 법화종 전국 교도 약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법화종 원로회의 부의장 광덕 스님은 종정 추대사에서 “제1대 종정 혜일 정각 대종사에서부터 오늘 취임하시는 제12대 도정 대종사까지 법화 종문의 본분을 바

로 세우시고 진리가 널리 피어나게 하옵소서”라며 추대의 마음을 전했다.

법화종 제12대 종정에 취임한 도정 대종사는 법회에서 “둥글고 밝은 옛 거울이 허공에 걸려서 오래 세월 사람 없이 홀로 스스로 비추네. 본시 맑은 거울로 옛바탕이 홀로해서 이제까지 한가한 빛을 다 발하네”라고 본래 원만하고 밝은 반야자성이니 불성은 항상 그 자리 그대로라고 말했다.

법화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봉행사에서 “법화종 종정으로 추대되신 도정 대종사께서는 법화행자들의 훌륭한 선각자이시며, 예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 정진 하셨습니다. 보살의 위없는 깨달음을 증득하기 위해 우리 모두 위범 망구의 길을 나서야 합니다”며 새로 취임하시는 종정을 중심으로 수행 정진할 것을 서원했다.

이날 법회에는 통영안정사 소장 보물 제1692호 ‘안정사영산괘불’ 친견법회가 같이 열려 많은 불자들이 참배했다.

## 대각회 이사장 혜총 스님 후원금 전달

보리가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상담대학원 후원기금 총 3천만원 전달

대각회 이사장 혜총 스님(조계종 전 포교원장)은 6월 7일,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상담대학대학원 후원금 각 1,000만 원을 전달했다.

6월 7일,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혜총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하고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 스님)에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상담대학대학원 후원을 위한 기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대각회에서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상담대학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기금을 전달해주어 감사하고, 이번 후원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후원의 발길이 이어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불교여성개발원과 불교상담대학대학원의 후원은 이번이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혜총 스님은, “종단의 구성구석에



▲조계종 대각회 후원금 전달

있는 단체들이 발전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번 기금을 전달하게 되었으며 특히 불교상담대학대학원이 활성화되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금 전달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가산당 지관 대종사 부도탑과 비 제막식에 참석해준 총무원장 스님께 감사의 인사말을 함께 전했다.

지난 5일, 32대 조계종 총무원장 가산당 지관 대종사의 가르침과 업적을 기리는 사

리탑과 비가 해인사 흥제암에 조성됐다. 제막식에는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하여, 지관 대종사의 가르침을 다시금 기렸으며, 이날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사진 속의 활짝 웃는 생전의 그 모습이, 진정으로 그림고, 진정으로 추모하고, 진정으로 보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으며, 건립된 사리탑과 탑비는 각각 높이 490cm와 480cm로, 사리탑에는 스님 사리 3과와 유골이 봉안되었다.

##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 본격 돌입

능혜, 백운, 지홍, 대은 스님 4파전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5일 태고종 제 26대 총무원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 4인의 등록을 마쳤다. 태고종 제 26대 총무원장 후보로는 능혜(전 총무원 총무부장), 백운(전 총무원 부원장), 지홍(전 중앙종회 부의장), 대은(해동불교대학장) 스님 등 4인이 등록 확정됐다.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월봉스님)는 6월 16일 오후 2시 총무원장 입후보 등록을 마친 능혜, 백운, 지홍, 대은 스님에 대한 입후보자 자격 적부심사를 실시해 후보자 4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후보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어 실시한 기호추첨에서 능혜스님이 1번, 백운스님이 2번, 지홍스님이 3번, 대은스님이 4번을 각각 뽑았다. 후보들은 6월

19일 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 130회 임시중앙종회에서 1차 정견발표회를, 7월 5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2차 정견발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6월 19일 열린 총무원장 후보 정견 발표에서 기호 1번 능혜 스님은 소통과 화합을 통한 협치를 내세웠다. 스님은 “소통과 화합이 우리 종단의 나아갈 길”이라며 “종단에 봉직하면서 쌓아온 행정실무 경험과 사회활동 경험 등을 종단발전에 회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선암사 분규문제에 대해서도 “선암사 문제는 선암사 대종의 문제가 아니라, 종단의 문제다. 선암사 출신은 아니지만 선암사를 사수하겠다는 종단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호 2번 백운 스님은 한국불교 장지종

단으로서의 태고종 위상강화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스님은 “떨어진 위상을 올리는 것은 종도들의 원력이 있어야 한다. 교세 확장을 통해 종도들의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기호 3번 지홍 스님은 구체적인 공약 대신 입후보 소회를 밝혔다. 스님은 “종가집이 가세가 기울어진다고 작은집이 종가집이 되진 않는다. 태고종은 어디까지나 한국불교 장자 종단으로 종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호 4번 대은 스님은 원용살림을 바탕으로 한 전통종단, 문화종단, 복지종단을 기치로 걸었다. 스님은 이날 5대 종책 기조를 공개했다.

# 부처님 자비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눕니다

|      |     |      |         |
|------|-----|------|---------|
| 개천사  | 전세형 | 6/5  | 30,000  |
|      | 장상자 | 4/24 | 100,000 |
| 관성사  | 인선  | 5/22 | 20,000  |
|      | 황성녀 | 5/29 | 10,000  |
|      | 김병석 | 6/5  | 10,000  |
|      | 수정  | 6/16 | 30,000  |
|      | 인선  | 6/19 | 20,000  |
|      | 대관  | 5/22 | 10,000  |
| 기로스승 | 상지화 | 5/22 | 10,000  |
|      | 수증원 | 5/22 | 10,000  |
|      | 밀공정 | 5/22 | 10,000  |
|      | 총지화 | 5/22 | 10,000  |
|      | 법수원 | 5/22 | 10,000  |
|      | 선도원 | 5/22 | 10,000  |
|      | 법지원 | 5/22 | 10,000  |
|      | 일성혜 | 5/22 | 10,000  |
|      | 불멸심 | 5/22 | 10,000  |
|      | 사홍화 | 5/22 | 10,000  |
|      | 안주화 | 5/22 | 10,000  |
|      | 해정  | 5/30 | 10,000  |

|                             |       |      |        |
|-----------------------------|-------|------|--------|
| 덕 화 사<br><br>동 해 사<br>만 보 사 | 원 봉   | 6/5  | 10,000 |
|                             | 지 선 행 | 6/5  | 10,000 |
|                             | 원 봉   | 6/16 | 10,000 |
|                             | 지 선 행 | 6/16 | 10,000 |
|                             | 대 관   | 6/19 | 10,000 |
|                             | 상 지 화 | 6/19 | 10,000 |
|                             | 수 증 원 | 6/19 | 10,000 |
|                             | 밀 공 정 | 6/19 | 10,000 |
|                             | 총 지 화 | 6/19 | 10,000 |
|                             | 법 수 원 | 6/19 | 10,000 |
|                             | 선 도 원 | 6/19 | 10,000 |
|                             | 법 지 원 | 6/19 | 10,000 |
|                             | 일 성 혜 | 6/19 | 10,000 |
|                             | 불 멸 심 | 6/19 | 10,000 |
|                             | 사 홍 화 | 6/19 | 10,000 |
|                             | 안 주 화 | 6/19 | 10,000 |
|                             | 김 정 애 | 6/5  | 10,000 |
|                             | 서 해 원 | 6/5  | 10,000 |
|                             | 탁 상 달 | 6/20 | 20,000 |
|                             | 정 덕 순 | 5/25 | 10,000 |

|        |     |      |        |        |
|--------|-----|------|--------|--------|
| 밀인사    | 정정희 | 5/30 | 5,000  |        |
|        | 법천사 | 김정숙  | 5/30   | 10,000 |
| 법황사    | 박미경 | 6/19 | 10,000 |        |
|        | 벽룡사 | 양정현  | 6/12   | 10,000 |
|        | 양지현 | 6/12 | 10,000 |        |
|        | 권형민 | 6/12 | 10,000 |        |
|        | 실보사 | 이순옥  | 5/25   | 10,000 |
| 실지사    | 유승태 | 5/25 | 10,000 |        |
|        | 정경자 | 5/25 | 10,000 |        |
|        | 조성우 | 6/2  | 10,000 |        |
|        | 박병성 | 6/9  | 20,000 |        |
| 운천사    | 무명씨 | 6/12 | 20,000 |        |
| 일원어린이집 |     |      |        |        |
|        | 김용미 | 5/25 | 10,000 |        |
|        | 하재희 | 5/25 | 50,000 |        |
|        | 구미자 | 5/31 | 10,000 |        |
| 정각사    | 김문수 | 5/23 | 10,000 |        |
| 지인사    | 승효제 | 6/5  | 10,000 |        |
|        | 허성동 | 6/14 | 30,000 |        |
|        | 승효제 | 6/16 | 10,000 |        |

|        |       |      |           |
|--------|-------|------|-----------|
| 초록어린이집 |       |      |           |
| 총 지 사  | 황 화 성 | 5/25 | 30,000    |
|        | 손 경 옥 | 6/15 | 10,000    |
|        | 신 용 도 | 6/16 | 10,000    |
|        | 박 정 희 | 6/16 | 10,000    |
|        | 원 당   | 6/19 | 10,000    |
|        | 묘 심 해 | 6/19 | 10,000    |
| 혜 정 사  | 故송무생  | 6/20 | 1,480,087 |
|        | 최 영 레 | 5/22 | 10,000    |
|        | 최 영 레 | 6/20 | 10,000    |
| 화 음 사  | 무 명 씨 | 5/30 | 10,000    |
|        | 무 명 씨 | 6/2  | 10,000    |
|        | 무 명 씨 | 6/15 | 20,000    |
| 흥 국 사  | 지 정   | 6/5  | 20,000    |
|        | 지 정   | 6/16 | 20,000    |
| 사원명무기명 |       |      |           |
|        | 이 형 근 | 5/31 | 10,000    |
|        | 정 상 철 | 6/15 | 10,000    |
|        | 김 갑 선 | 6/19 | 10,000    |

5월 21일 ~ 6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 서울·경인 교구 관성사 상량 지진불사 봉행

복합문화도량 준공을 목표로 건축 중

불교총지종 서울·경인교구는 6월 5일 오전 10시 관성사(주교 인선 정사) 신축 상량 지진불사가 서울 종로구 돈의문 관성사 신축 현장에서 봉행됐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의 집공으로 총지종 정통의례에 따라 봉행된 상량 지진불사는 통리원장 인선 정사, 관성사 홍순화 신정회장 등 교도들이 동참했다.

관성사 홍순화 신정회장은 발원문에서 “새롭게 장엄하는 관성사가 일체중생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청년도량이 되게 하시고, 고통과 괴로움에 허덕이는 중생에겐 감사와 선악의 도량이 될

수 있도록 범향을 내려 주소서. 무사히 공사를 마치고 부처님 전 현공하기를 서원합니다” 라며 신축하는 관성사 공사의 안전을 서원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설법에서 “관성사는 사대문 안의 총지종 사찰로 정통 밀교 포교의 중심 도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성사와 총지종의 모든 교도들의 서원으로 무사히 공사가 완료되기를 서원합니다” 고 말했다.

신축 관성사는 종로구 돈의문 지구 재개발 아파트 현장 내에 5층 건물로 8월 준공 목표로 건축중이며, 복합문화도량으로 선보이게 된다.

##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잠원햇살어린이집 김선희 원장 임명



▲ 잠원햇살어린이집 김선희 원장 임명식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인선)은 6월 23일 잠원햇살어린이집 김선희 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인선 정사는 총기 46년 새로 수탁 받은 잠원햇살어린이집 김선희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유아 교육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새로 임명된 김선희 원장은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유아교육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경방어린이집, KT연구개발센터 꿈나무 어린이집, 위커힐 행복어린이집

원장을 역임한 유아교육 전문가이다. 김선희 원장은 “불교의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을 실현 하겠습니다” 며 어린이집 운영 포부를 밝혔다.

잠원햇살어린이집은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8길 25, 1층 레미안 신반포 아파트 내에 위치했다. 총 166㎡에 5개의 보육실을 갖추고 총 8개반 58명의 영·유아를 총 12명의 교직원들이 돌보고 있다.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은 산하 어린이집 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 할 계획이다.

## 지공 기로정사 만다라요양원 기부금 전달

“종단의 노인복지 활성화를 기대하며”



▲ 지공정사 흥곡사 기부금 전달

지공 기로정사는 6월 2일 전주 흥곡사에 위치한 만다라요양원(원장 지정 정사)을 방문하여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지공 기로정사는 만다라요양원을 방문하여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만다라요양원은 종단의 노인복지 선도

기관입니다. 수고하시는 종사원 여러분들에게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공덕이 함께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며 “종단적 차원에서 기로정사와 전수님, 기로보살님들을 위한 요양시설이 마련되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 자신도 늙어가는 입장에서 향후 나이가 들어 아프게 되면 믿고 생활할 수 있는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지공 기로정사는 생일을 맞이하여 적립해돈 돈을 보람된 곳에 보시하기를 서원하던 중 종단에서 운영하는 만다라요양원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만다라요양원은 2009년 10월 전주 흥곡사 1층에 개원하여 입소를 희망하는 대기가 있을 정도로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다.

## 울산 실보사 주교 덕광정사

2017년 울산미술대전 한국화 부문 입선



▲ 덕광정사 입상작품

2017년 한국미술협회 울산광역시 지부가 주최하는 울산미술대전에서 실보사 주교 덕광 정사가 문인화 부문에서 홍매화를 출품해 입선의 영광을 안았다.

지난 5월 16일 울산미술대전 사무국은 올해의 수상자와 전시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전은 한국화, 민화, 서양화, 수채화, 조각, 공예, 서각, 전각, 서예(한글, 한문), 캘리그래피, 문인화 부문으로 나누어 응모한 작품들을 예비심사와 현장 작품 시연 등의 절차를 거쳐 당선작을 결정했다.

실보사 주교 덕광 정사는 문인화를 전문으로 작품 활동을 하는 미술가로 실보사가 있는 울산 지역 만이 아니라, 서울, 대구, 경주, 부산, 경남 지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미술 공모전에 입상한 바 있다. 현재 총지종보에 사군자 그리기 코너를 연재 중이다.

## 제4회 청소년 바른인성 형성 프로그램 ‘참된 나를 찾는 여행’ 개최

불교총지종이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제 4회 청소년 바른인성 형성 프로그램 ‘참된 나를 찾는 여행’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모집기간은 2017년 7월 3일(월) ~ 12월 17일(일) 까지 이며 기간 내 신청 후 자유롭게 프로그램 참가가 가능하다. 진행 내용은 나를 찾는 여행을 취지로 5~8명이 한 팀이 되어 1박 2일간 함께 여행을 떠나

는 형식이다. 참가자 1인당 8만원의 여행비가 지원되며 여행 참가자는 겨울에 개최하는 한마음 캠프(2017년 스키캠프 2박 3일 예정)에 무료로 참가가 가능하다.

모집대상은 초등학교(4학년 이상)부터 고등학교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각 사원 주교 및 행사 접수처로 문의 가능하다.

문의 02-552-1080~3  
jyeoni@hanmail.net



▲ 포항 수인사 김조은양 입상

포항 수인사 교도 박금화 보살의 자녀 김조은 양이 경북도민일보 주최 ‘2017 청년푸드 버스킹 경연대회’에서 지역 특산물 꽃게를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낸 ‘뽕삭하게’와 ‘삼겹살 토띠야’를 출품해 영예의 금상인 포항시장상을 수상했다.

수인사에서 사찰요리 교실을 운영 중인 박금화 보살의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은 김

조은 양은 이번 대회에 친구인 박혜경 양과 출전하여 10개의 팀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김조은 양은 “평소 어머니가 하는 요리를 어geg 너머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따로 조언을 받은 것은 없고, 친구와 아이디어를 만들고 레시피까지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기까지 어머니의 불공이 큰 바탕이 되었습니다” 며 수상 소감을 말했다.

지난 10~11일 이틀간 열린 버스킹 대회는 경북도민일보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 특성 요리 개발을 목적으로 포항시와 함께 주최하는 명문 요리 대회이다. 또한 참가 10개 팀은 총 6000만원의 판매고를 올리며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며 완판을 기록했다.

## 법음과 함께 자비를 전하는 불교총지종 대구·경북 금강합창단



지휘자  
배해근



반주자  
황소영



단장  
김계숙



총무  
김영지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봉산동) 단원모집 상담전화 053) 425-7910



지상 설법

# 인과법칙과 업식의 작용



관음사 주교 정인화

“  
부처님 법은 의왕이라 했습니다.  
정확한 의왕의 처방을 받아야 가정재난을 빨리 치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행실천으로 행복하고 편안한 삶으로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

불자여러분.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실은, 많은 세월동안 물질에 얽매이고, ‘나’라는 이름에 끌려 다니면서 몸과 입과 뜻으로 지는 업식이 똥똥 뭉쳐진 인과 작용으로, 윤회를 거쳐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것이겠지요.

과거에 내가 모를 때 행씨, 말씨, 마음씨로써 좋은 씨앗, 나쁜 씨앗 심은 것이 바로 지금의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이 과를 낳고 과가 인을 낳는 것이 인과법입니다. 선행의 결과는 복과 행복이고, 불선행의 결과는 불행과 고통입니다. 인간의 탐·진·치 삼독으로 쌓아 모은 결과가 고통인 것입니다. 자업자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 들여야 합니다. 내가 지어 받는 인과법칙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고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우주법계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잘한 것, 잘못한 것을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문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계는 아주 철두철미하여 속일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행복과 불행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이 감당해야 합니다. 힘들 때마다 팔자 탓, 부모 탓, 조상 탓 하며 상대를 원망하고 남 탓만 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시주팔자의 년주, 월주, 일주, 시주는 바뀌지 않지만 팔자, 즉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지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행은 실천행입니다. 경험적이고 체현적인 것입니다. 실천행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뤄지는 것이 없습니

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떠드는 이론은 이론일 뿐입니다. 수행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나의 모습보다 더 행복한 삶으로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수행의 어려움을 참고 이기면 지금의 고난이 행복으로 바뀌는 기회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 부처님이 나에게 어떤 당체 법문을 주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현재 나의 고난이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당체 법문임을 깨우쳐야 합니다. 불행에는 지혜를 중요시 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축생과 같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없습니다. 바른 정법 수행을 통해서 만이 지혜는 증득을 합니다. 지혜는 당체법문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재난을 소멸하고 서원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관음사에 와서 교화를 하면서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70대 어머니와 세자매가 찾아왔습니다. 그 중 30대인 막내딸이 정신질환 환자였습니다. 막내딸은 어려서부터 예쁘고 총명해 공부도 잘해 좋은 대학을 나와 직장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 6년을 정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비싼 입원비에 경제적 어려움 집으로 왔는데,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행패를 부리곤 했습니다.

사원에 들어서자 막내딸은 ‘이게 무슨 절이나’ 고 소리를 지르고 ‘집에 가자’ 고 한바탕 난리였습니다. 그러나 같이 온 어머니와 두 언니의 눈빛은 간절함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절에 안와도 좋으니 귀왕 오셨으니 불공 한번 해보고 가세요’

라고 권했죠. 둘째 딸이 선듯 불공을 부탁했습니다. 바로 가지고 있던 차비를 회사 하고 불공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 경험하는 총지종의 불공법에 의아해 하며, 한편으로는 간절함을 담아 동참했습니다. 불공이 막바지에 들어반 야심경을 봉독하는데 서원당 밖에서 왔다 갔다 하던 막내딸이 어느새 법당에 앉아 있더라구요. 불공 끝나고, 막내딸은 속도 하지 않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둘째딸 하는 말이 유명한 절이나 무속인도 감당을 못한 동생이었는데, 관음사 와서 차츰 안정을 찾아가니 아버지도 계속 한번 다녀보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동생도 “언니 그 절에 언제가? 나도 가고 싶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9일 불공을 권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법입니다. 49일 불공을 하던 어느날 가족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집안에 전해오는 이런 저런 얘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과거 시험 보러 친구와 갔는데, 시험지 답안지를 친구를 주었다가 흑심을 품은 친구가 고조 할아버지의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을 써서 급제를 했다. 고조 할아버지는 그 역욕함을 풀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15대 조상은 집안의 종이 잘못을 저지르자, 고문의 진언의 위신력으로 모든 죄업이 소멸되기를 서원하고 불공을 했습니다. 막내딸은 49일 불공을 해서 차츰 나아져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불자여러분

엄청난 사건의 숙제를 물어 두고 가정과 자식이 잘되라고 한다면 과연 이루어지겠는지요. 현실에서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은 업 덩어리이며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업 덩어리가 잠자고 있다면 기도정진 많이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찾아서 돌아 봐야 합니다. 바른 정법 수행으로 인과를 바로 깨우친다면 얼마든지 고난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나를 성숙시키는 과정입니다. 나를 체에 거르고 맑게 정화시키는 것이며, 삶의 잡초와 독을 뽑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의 찌꺼기를 용광로에 넣어서 새로운 쇳덩이로 재생시켜야 합니다.

의사는 정확한 처방을 해야 하고, 환자는 처방대로 약을 먹고 치료 잘 받아야 병을 고칠 수 있겠죠. 부처님 법은 의왕이라 했습니다. 돌팔이의 잘못된 처방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정확한 의왕의 처방을 받아야 가정재난을 빨리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면의 수행을 게을리 하지 말고, 육행실천으로 행복하고 편안한 삶으로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요 중요한 시기입니다. 부처님의 공부는 보석과 같고 너무나 행복한 공부입니다. 불자 여러분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여 행복하십시오.

옴마니반메훎.  
옴마니반메훎.  
옴마니반메훎.  
성도합시다.

칼럼 지혜의눈

## 진실(眞實)을 말하는 혁명(革命)

“투명한 사회 위해 공개할 것 공개해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살아 움직여야”

대한민국이 선진화의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어 사회 전반에 우려가 많다. 대기업의 성장이 결국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른바 ‘낙수 효과(落水效果)’가 증명되지 못하고 부(富)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면서 상당수 국민들은 인간적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마저 상실할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 1위, 노인자살률 1위로, 많은 어르신들이 빈곤에 허덕이다 절망에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어느 나라보다 많다. 장년층은 조기 은퇴와 치솟는 주거비·교육비 부담으로 별다른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채 가난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형국이며, N포세대로 불리는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결혼과 출산마저 포기한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제는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고 가난 구제에 나서야 할 때이다.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미룬다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문제가 분명히 드러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쉬우며, 진실이 은폐되고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어떤 개선 노력도 국민적 호응을 얻거나 성공하기 쉽지 않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증인으로 주목받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경제, 알아야 바꾼다>에서 우리나라는 누가 얼마만큼 세금을 내는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세금을 누가 얼마만큼 내는지 분석한 결과를 세금 프라이버시 공개를 대며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은 상위 0.1%가 낸 세금의 비중이 얼마인지, 제일 많이 낸 사람의 비중이 얼마

인지 다 공개하는데 반해 우리는 돈 많은 사람에게 세금 더 받자고 하면 시끄러워질까봐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에 대한 문제제기도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어떤 단체든 튼튼히 발전하려면 재정 등 마땅히 공개될 것이 공개되어야 한다. 기부를 받고 싶다면 재정을 어떻게 쓰고 있는 지 투명하게 공개해 기부금이 목적사업에 제대로 쓰인다는 점을 알리는 게 유리하다. 국가도 예외가 아니다. 부패지수가 낮고 투명성지수가 높을수록 대외신인도도 높아져 국제사회의 투자가 늘어나 그만큼 경쟁력이 높아지게 된다.

영국의 조지 오웰은 “거짓이 지배하는 시대에 진실을 말하는 것은 혁명적 행위다”라고 말했다. 그만큼 세상의 변혁을 위해서는 진실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말로 이해된다.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공개될 정도여서 부작용도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투명한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굼은 전통인 동시에 사회의 병을 고치는 약이라고 봐야 한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부단한 혁명을 이뤄나가야 한다. 그 혁명은 각 개인들의 각성(覺性)을 바탕으로 조직 각 부문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살아 움직일 때 더욱 힘을 받을 것이다. 감춰진 것을 드러내고 몰랐던 것을 새로 아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향상일로(向上一路)의 실천이 다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한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김봉래  
불교방송  
불교사회인의  
책임 실천운동  
TF팀장 겸  
기획위원

### 밀교사상사개론

편저 서운길

불교총지중 법장원

대승불교의 사상과 교리를 바탕으로  
밀교의 수행체계를 집대성한 최고의 밀교개론서

대승불교의 최고봉인 밀교 교리의 대중화  
밀교사상사개론

편저 서운길



불교총지중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역삼2동 776-2) / Tel 02.552.1080





원당정사

밀교경전 읽기 4

### 2) 경전상의 기원

인도에서 관음신앙이 일어나게 된 것은 대승불교 운동의 초기인 기원후 1-2세기 경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경율론 삼장 가운데 부분적으로 관세음보살에 관해 언급한 것까지 포함하여, 법화경계로서 7본이 있으며, 밀교부에 속하는 것으로는 오십여종, 반야부에 이종, 유가부에 일종 등 80여종이나 될 정도로 관세음보살에 관하여 언급이 없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초기 관음신앙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경전은 관음신앙의 기본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다. 이러한 관음신앙은 기원후 1세기 경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 간다라(Gandhāra) 지방에서 발견된 관음보살상과 함께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원후 1세기경 부터 전개되어 왔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기원후 1세기 경에 성립된 것으로 알려진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의 안내로 53천지식을 만나면서 28번째로 남천축국의 보타락카(Potalaka)산에서 관자재보살을 친견하는 내용에서 선재동자가 묻는 보살행과 보살도에 대하여 관음은 일체 중생이 18종의 공포를 벗어나도록 하는 서원을 세워 대비법문광명행을 성취하였다고 하는 내용에서도 관음신앙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외에도 『수능엄경』, 『이십오원통장』에서 관세음보살이 자신이 삼매에 들게 된 연유를 설명하는 내용에서 이근원통이 가장 수승하면서 말세 중생들이 수행하기에 쉬운 방법이라고 찬탄하는 내용에서 관음보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 3) 힌두교의 영향

관음신앙의 또 다른 기원은 힌두교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본래 불교에서 대승보살 신앙의 출현은 힌두이즘(Hinduism)의 발흥과 상호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관자재보살의 산스크리트 어원 Avalokite vara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Ī vara는 자제신 즉 힌두교의 절대신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브라만 사상에서 우주의 원리인 브라흐만(Brahman)이 우파니샤드(Upani ad)시대에 와서 인격적인 모습으로 표현되면서 나타났다.

따라서 힌두교의 인격신 Ī vara의 절대자의 개념을 관자재보살의 명칭에 수용하여 관음신앙을 전개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힌두교에서 비슈누(Vi u)신과 시바(iva)신은 가장 대중적인 신앙의 대상이다. 비슈누(Vi u)신이 대중적 신앙의 대상이 된 것은 『기따』에 반영되고 부터이다.

『기따』는 인도의 서북부 지방에서 바수데바(vāsudeva)라는 신을 지존으로 신봉하던 바가바파(bhāgavata)파에 의하여 만들어진 성전이다. 이 바가바파파들이 살던 지방에 프리슈나(K u)라는 영웅이 신격화되어 바수데바-프리슈나신이 비슈누신과 동일시되었다.

그리하여 프리슈나신은 비슈누신의 화신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하였고, 요가-마야(yoga-māyā)에 의해 인간 세계에 화신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힌두교의 화신사상은 불교의 관음신앙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관음보살의 응신사상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물로 보는 밀교

오대명왕령(五大明王鈴)

시 대 : 8-9세기 중국 당나라 시대

소 장 처 : 일본 동경 국립박물관



은 밀교의 신앙 대상인 명왕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5존의 명왕을 이르는 것이다. 본래 별개로 존재하던 명왕들이 중심으로 사방(동,서,남,북)으로 배치된 것이다. 이는 일본 진언종 밀교(동밀)에서는 부동명왕이 중심에 위치하고, 동쪽에 강삼세명왕, 남쪽에 군다리명왕, 서쪽에 대위덕명왕, 북쪽에 금강야차명왕을 배치한다. 일본 천태종 밀교(태밀)에서는 금강야차명왕 대신 오주사마명왕이 오대명왕의 하나로 배치한다. 일본에서는 밀교가 헤이안 시대 전기에 융성하였고, 오단법의 본존으로 이들 오대명왕이 모셔졌다. 오대명왕은 주로 일본 불교에서 숭배되었지만 중국에서도 약간의 흔적을 볼 수 있다.



도현정사

중국불교옛보기 ②

## 불교의 최초 전래설 (傳來說)

중국불교를 오래전에 전래된 것으로 설정한 것은 오랜 전통과 권위를 부여하기 위함

불교는 언제, 누구에 의해서 처음 중국에 전래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으나 명확하게 어느 때 누가 전했다고 결정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 물론 각각의 주장들은 여러 문헌이나 기록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주장들을 바탕으로 한 문헌이나 기록 또한 정확성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중국으로의 불교전래에 대한 여러 가지 설(說)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진다. 그것은 가능한 최초의 불교 전래시기를 아주 오래된 것으로 잡는 것이다. 이는 전통을 중시하는 중국인들이 불교가 아주 오래전 중국에 전래된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더욱더 오랜 전통과 권위를 불교에 부여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불교의 중국 전래설 중에는 논란 가치조차 없을 정도의 허무맹랑한 주장도 있다.

다음은 감몽구법설(感夢求法說)이다. 후한의 황제 명제(明帝)(재위 58-75)가 영평 10년(기원후 67년) 꿈에 금인(金人)이 서쪽으로부터 광명을 비추면서 궁정으로 오는 것을 보고 인도에 불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채음, 주경, 왕준 등 18인을 인도로 보내어 불교의 법을 구하게 하였다. 그들은 인도로 가던 도중에 백마에 불경과 불상을 싣고 오던 가섭마등과 축법란을 만나 함께 낙양으로 돌아왔는데 황제인 명제는 매우 기뻐하며 낙양성에 백마사를 짓고 가섭마등과 축법란을 머물게 하였다. 그들은 이곳에서 경전을 번역하였는데 현존하는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이 그때의 번역이라는 설이다.

감몽구법설은 현재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설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 이 전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다. 예를 들면 당시에는 이미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 성행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서역으로부터 도래승도 와있었다는 문헌 사료가 보이므로 불교는 이미 이전에 전래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불교의 중국 초전이 후한 명제 영평 10년이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

중국의 불교전래 시기가 전한 애제(기원전 2년) 때부터라는 문헌상의 기록이 처음 불교가 전래 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어떤 문화가 주변국가로부터 유입된 시기가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것이 문헌상에 기록될 때는 이미 그 문화의 유입이 상당기간 흐른 후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시기는 전한의 애제시대 보다 훨씬 이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세음보살 42수(手) 진언

37. 보경수(寶經手) 진언



옴 아하라 살바미나 다라 부니제 사바하  
만약 많이 듣고 널리 배우기를 원하면 이 진언을 외우라

그때 그시절

총기 2년(1973) 7월 3일

용달과(用達課) 설치

각 선교부의 용품을 공동구입하여 배부하고자 용달과를 설치운영 함

총기 3년(1974) 7월 25일

서면선교부를 개설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에 서면선교부를 개설 설단불사 거행

주교 강상선 전수 임명

총기 4년(1975) 7월 22일

제10회 원의회 의결

포항선교부에서 원의회를 개최하고 의결 시행

1. 승직법 제정

2. 선교부의 명칭변경의 건

- 재단소유건물은 "總指宗○○寺"로 하고, 사원의 본존도량도 서원당으로 부르기로 함

총기 5년(1976) 7월 19일

기우불사(祇雨佛事) 봉행

전국적으로 한제(旱災)가 극심하여 1주간 전 스승과 교도가 일제히 기우불사 함

여름방학 초기예매 50%할인 이벤트

(~2017.7.21까지)

7월 21일까지 예매하시면 체험석을 50% 할인가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역사인물 체험연극

세조

인재를 뽑다



2017.07.22-08.20 (월일) 정동극장 11:00 / 13:30

주최 아트브릿지 후원 정동극장 후원 MOENC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문의 아트브릿지 02-741-3581





김기자의  
사/원/탐/방

# 관음사 관세음보살 법계궁

관음사  
1974년 7월 서면 선교부 개설  
1975년 흥포서원당 개칭  
1981년 1월 現 관음사 준공

주소:부산시 부산진구 당감2동 64-5  
전화:051-896-1578



▲ 사진①-관세음보살 법계궁 부산 관음사 사진②-훈향정공하는 관음사 정인화 주교 사진③-진언수행 정진하는 관음사 보살님들



## 육자대명왕 진언으로 중생 구제의 대업을 이루다

총지종의 본존은 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이다. 이 진언은 관세음보살의 가지력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재난을 소멸하며 소원을 성취하는 공덕이 있다.

경전에는 「육자진언을 염송하면 자기 있는 곳마다 한량없는 불보살과 천룡팔부 다 모여, 무량한 삼매 범문이 구축해 칠대 중족이 다 해탈하고 뱃속 가운데 모든 별레가 모두 보살의 위를 얻는다. 사람이 날마다 육바라밀의 원만한 공덕을 갖추어 무진변제와 청정 지혜를 얻고, 입 가운데 나는 기운이 다른 사람 몸에 닿으면 그 사람도 모든 진독을 여의고 보살의 위를 얻는다. 만약 사천하 사람들이 모두 칠지보살의 위를 얻더라도 그 보살이 소유한 공덕이 육자진언 한번 염송하는 공덕보다 못하다. 육자진언은 곧 관세음보살의 미묘 본심이라 이 진언을 염송하면 그 사람은 ‘탐·진·치’ 삼독에 얽착하지 않는다. 이 진언을 몸에 지니면 그 사람의 손이 닿는 곳과 눈으로 보는 곳의 일체 유정이 속히 보살의 위를 얻어서 영원히 생로병사의 고를 받지 아니한다」

관세음보살 대명왕진언의 가지력은 중생의 근기로는 알 수 없는 신묘한 세계이다. 총지종의 사원 중 관

세음보살 육자진언의 가지력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법계궁이 바로 부산 관음사(주교 정인화)이다. 개창과 함께 시작된 진언수행의 열기는 지금도 꺼질 줄을 모르고 타고르고 있다.

### 부산의 교통 중심에 우뚝 선 관음사의 창건

총지종의 입교개종과 함께 일어난 정통밀교의 진언염송 수행의 불길은 온천장 정각사를 중심으로 퍼져 나갔다. 밀려드는 교도들은 정각사 계단에서, 복도에서, 정각사 앞을 모두 채우고도 인근 일대의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중단의 최고 어른이자 총지종을 입교개종하신 원정대성사께서는 지역별 사원 신축을 명하시고, 관음사, 성화사, 범성사 등 부산 지역사원 확충에 나선다.

관음사는 입교개종 후 교화의 전진지기로 1974년 7월 25일 부산진구 부암동 124-27에 서면 선교부를 개설하고 초대 주교로 수행월 전수가 부임했다. 다음

해에 이름을 흥포서원당(弘布誓願堂)으로 바꿨다. 이후 늘어가는 교도들의 수행공간 확보를 위해 1978년 당감동 62-3번지 대지 100평을 매입하고 본격적인 서원당 신축 불사를 진행했다. 1981년 1월 13일 총지종 부산 관음도량 관음사가 그 위용을 드러내며 당감동 한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냈다. 관음사는 2층 건물로 1층에 요사, 2층은 서원당으로 사용중이다. 대중공양 처 건물은 별도로 1개동이 있다.

관음사는 부산의 지도를 펼쳐보면 가장 중심에 위치한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다. 당감동은 예로부터 서부 경남으로 통하는 길목으로 교통의 중심지인 서면과 가깝다. 지명은 1914년 동래군 동평면의 당리(堂里)와 감물리(甘物里) 두 마을을 합쳐 당감리(堂甘里)라고 하면서 생긴 동명이다. 감물리는 현재의 당감천을 옛날에는 감물내, 감물천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하며, 당리는 마을에 오래된 당집과 당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당감동에는 백양산 자락의 신라의 고찰인 선암사가 자리하고, 가까운 초읍동에는 천태종 사찰인 삼광사가 있어 부산 불교의 중심이다.

1905년 일본의 경부철도주식회사가 부설한 경부선



▲ 불교 총지종 관음사 약도

## 백양산 관음신앙의 성지 총지종 관음사

철도가 당감동을 지나면서 이곳은 철도청 차량기지나 미군 군수 물자기지가 오랫동안 있었다. 나라의 산업화가 진행되던 1970년대 당감동은 진양고무 신발 공장과 미원간장공장이 있었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많은 사람이 살던 서민들의 주거지였다. 지금은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세상이지만 그때는 한집에 여러 가구가 모여 살던 시절이라 서로 속사정까지도 잘 알았다.

관음사 신도들은 그때의 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모두가 대문을 열어두고 살던 그 시절의 사람들처럼 정이 넘친다. 대부분의 교도들은 초창기 정각원 스승님의 인연공덕으로 40년 이상 진언염송 정진 중이다.

### 신묘한 관세음보살의 가지력

관세음보살 육자진언의 가지력은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는 원동력이다. 교도 중 한 노보살님은 육자진언의 가지공덕 체험에 대해 “가난과 병마의 고통으로 한지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때, 총지종은 저에게 추운겨울 따뜻한 햇살처럼 다가왔습니다. 회사와 진언염송은 삶의 고난을 이겨 나가는 방편이자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며 관세음보살 옴마니반메훔 진언 가지공덕으로 가난과 병마를 이겨냈다고 한다.

교도들 중 사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기독교인이었던 어느 보살님은 “무속인집에 시집과 가정은 돌보지 않고 술만 먹는 남편, 아이들을 키우기 위



▲ 4번사진-죽신성불의 대도는 불공정진 뿐 5번사진-6월 월초불공 회향에 동참한 관음사 교도들

해 시장에서 좌판을 열고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집근처에 있던 관음사에서 진언염송 불공을 하고 즉시 남편은 술을 끊고, 일을 하기 시작했고, 가정은 차츰 안정되고 지금은 70이 넘는 나이에도 영감님이 뱃일을 할 정도로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며 진언염송 수행의 큰 힘을 받아 고난에서 기적적으로 빠져 나왔다 한다. 그만큼 옴마니반메훔 진언 수행법은 강력한 것이었다.

### 사려 깊은 스승과 함께 서로를 살피는 신정회

관음사 신정회를 이끄는 김홍옥 회장은 총지종 신

정회의 젊은 리더이다. 시집와서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나온 관음사 서원당에서 시작한 신행은 벌써 30년을 넘어섰다. 처음에는 옴마니반메훔이 된지도 모르고, 눈을 감고 시어머니 하시는 데로 따라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마치 어릴 적 엄마 품에서 새근 새근 잠이 들 때처럼 그리도 포근해 지는 것이다.

칠없는 새막은 엄마가 되고,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할 때도 부처님이 계신데 걱정할 것 없다며 격려하기도 했다. 지금은 남편의 사업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가정도 큰 갈등 없이 잘 지내는 것이 모두가 시어머니가 가르치고 법을 이어가게 한 총지종의 진언염송 덕이라 한다.

이제는 남을 위해 보시행을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관음사의 대소사를 챙기는 신정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불공의 준비부터, 교도들의 집안 대소사까지 신경을 쓴다. 30년을 한 서원당에서 수행하다 보니 모두가 가족이고, 부처님이 이어주시는 도반인 것이다.

지금은 정인화 전수가 주교로 봉직하고 있지만, 관음사를 거쳐간 수행월 전수, 정정심 전수 등이 지금의 관음사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

관음사는 총지종 본존 육자대명왕진언의 실체인 관세음보살의 주석처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여 33 화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관세음보살. 세상 모든 중생들의 아픔을 모두 거두고 성불로 이끄는 그날까지 현재의 우리와 같이 머물고 있다. 이제 모두가 아픔 가슴을 달래고 싶을 때, 관세음보살의 법계궁, 부산 당감동 관음사로 참배를 떠나자.



관음사 최복순 보살 이야기



최복순 보살  
관음사 교도

군산에서 태어난 저는 다복한 가정에서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생활을 하여 성가대와 학생부, 청년부까지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당시의 저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음이 맞는 남자와 결혼을 하였는데, 시어머니가 무당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며느리와 무당인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지역을 전전하며 이사를 다녔습니다.

시어머니와 물리적으로 멀어지자, 감정 상하는 일은 줄어들었으나 남편의 술버릇이 하루가 다르게 고약해졌습니다. 남편은 매일 술을 마시고, 저와 아이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곳저곳으로 이사를 다니다가 부산까지 다다랐습니다. 마음이 힘들수록 저는 하나님에게 의지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가 기도를 하

“부처님 만나 다행입니다”

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절망감에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물에도 뛰어들어보고, 절벽으로 몸을 던지기도 하고, 약도 먹어보았으나 절친 목숨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발버둥을 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가지고 있던 신앙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나와 맞지 않는 종교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절에 한번 나가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막연한 짐승으로 가까운 현교 사찰을 찾았습니다. 대웅전의 부처님을 보자 두려움이 밀려들었습니다. 머리를 조아리는 절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무서움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듣고 배운 우상숭배 금기의 가르침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게는 절도 무용한가보다 하던 찰나 가까운 이웃 하나가 자석사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자석사에는 부처님 대신 옴마니반메흠 진언이 있었

습니다.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옴마니반메흠 진언을 외우니 허가 뿌리부터 굳는 것만 같아 그만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만히 누워 왜 옴마니반메흠을 외는 게 불가능한지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보았습니다. 오기가 발동하여 절에서 받은 불사법요를 펼치고 천천히 진언을 따라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들었지만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신명이 났습니다. 그간 하나님은 제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도 응답을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 부처님은 저의 상황을 헤아려 숨통을 틔어 주었습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저는 가정 다라니를 모시고 우리 가족의 무탈과 행복을 위해 마음을 다해 정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막내아들들 가지게 되었습니다. 편안한 생활을 하던 중 시어머니가 집

목한 사이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삶이란 역시 녹록치 않은 것이란 법입니다. 첫째딸이 유방암 말기라는 소식이 저희 가족을 뒤흔쳤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마음에 유명한 병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제검사를 받아보았지만 3개월 시한부 판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딸의 입원과 동시에 저는 오직 부처님만을 보면서 불공에 매달렸습니다. 매일 새벽 불공을 거르지 않았고,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염주를 돌렸습니다. 진언의 힘은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3개월의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딸아이는 깊은 신심으로 무려 10년을 더 살고, 비로자나 부처님의 결로 돌아왔습니다. 의사의 예견보다 40배를 더 산 것은 진언의 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교회 신앙 안에서 자랐던 저는 절망과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졌고 영영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삶의 여정에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진언 덕으로 가정의 화합과 평화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여태껏 그랬듯, 부처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불공으로 갚아 나가겠습니다.

“진언의 힘은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막연한 짐승으로 가까운 현교 사찰을 찾았습니다. 대웅전의 부처님을 보자 두려움이 밀려들었습니다. 머리를 조아리는 절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무서움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듣고 배운 우상숭배 금기의 가르침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게는 절도 무용한가보다 하던 찰나 가까운 이웃 하나가 자석사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자석사에는 부처님 대신 옴마니반메흠 진언이 있었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자석사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생계는 나 몰라라 한 채 술독에 빠져있는 남편과 어떻게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좌판 장사를 하고 있는 저의 상황을 들은 스승님은 조상불공을 제안하셨습니다. 49일의 날짜를 정하여 불공에 들어갔습니다. 신기하게도 남편이 마시는 술의 양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불공이 끝날 즈음, 남편은 새 사람이 되어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변화를 본 저는

에 찾아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의 다라니를 가리키며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 울먹였습니다. 온 가족의 화합을 원했던 저는 곧장 자석사의 스승님과 상담을 가졌습니다. 스승님은 시어머니가 품고 있는 영가들을 천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스승님의 말씀을 받들어 고향의 사찰을 찾아 영가들을 천도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시부모님과 자주 왕래하면서 화

관음사 이옥선 보살 이야기



이옥선 보살  
관음사 교도

총지종을 만나고서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계미생 이옥선입니다. 총지종을 인연으로 해서 제 삶의 기적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둘째 딸을 낳은 저는 몸과 마음이 극한 고통에 시달리는 신병을 앓았습니다. 매일 밤 귀신들이 등장하는 악몽을 꾸었고, 무력감을 이길 수 없었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로 형언하기 힘든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녀보았지만 명확한 병명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해지고, 거대한 불안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무당의 도움을 받으려면 관찰을 거란 주변의 권유에 귀환을 벌여보기도 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점차 지쳐가던 중 시누이가 동래에 있는 절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 절이 바로 정각사였습니다. 저의 사정을 들은 스승님이 불공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염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머릿속의 잡념이 말끔히 사라지고

이 잘 풀려 무려 50평이 넘는 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모든 일에 앞서 회사와 불공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행했습니다. 세 번째의 기적은 온 몸으로 전이된 난소암의 완치입니다.

밥을 먹지 않았음에도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여 소화제 생활을 이어 나가던 중에 사위의 권유

로 병원 침상에서 불공을 했습니다. 하루 네 번 정진을 거르지 않았고, 스승님과 매일 통화를 해가며 그때그때 필요한 불공을 또 했습니다. 맨 처음의 치료에서만 구역질을 조금 느꼈을 뿐 대부분의 치료를 부작용 없이 받았습니다.

얼마 안 있어 경과를 지켜보자고 말씀하셨던

을 선물해 주신 부처님과 스승님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옴마니 반메흠.

옴마니 반메흠.

옴마니 반메흠.

관음사 법회 안내

■ 월초불공 회향  
7월 7일 오전 10시

■ 하반기 49일 회향(해탈절)  
7월 15일 오전 10시  
장소: 관음사 서원당

■ 7월 17일 합동방생법회  
장소: 단양 문화실내체육관

부산시 부산진구 신전대로 197번길 37  
☎ 051-896-1578

“불가능한 일도 서원과 정진을 극복하였습니다”

기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여 저조차도 어리둥절했습니다. 가장 불공까지 마치고 나자 저의 신병은 깨끗하게 완쾌되었습니다.

두 번째의 기적은 셋방살이를 하던 우리 가족이 집을 장만한 일입니다. 형편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음에도 서원과 정진의 덕으로 일

로 병원 검진과 CT촬영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퍼진 난소암이었습니다. 일단은 항암치료로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불공의 힘을 믿고 있던 저는 즉각 관음사 스승님과 상의를 하여 불공을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치료를 위해 부산대 병원에서 6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매일 공식시간을 지

의사가 기적을 전해 주었습니다. 암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 년에 두 차례 관찰 치료만 할 뿐 약도 먹지 않습니다. 의사조차도 이런 일은 기적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단언컨대, 이 모든 일은 불공의 힘으로 인해 일어난 것입니다. 현재 저는 관음사 근처로 집을 옮겨 매일매일 용맹정진하고 있습니다. 제게 기적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초절전으로 21세기를 열어갑니다  
인지전기공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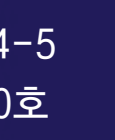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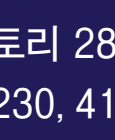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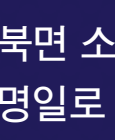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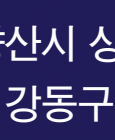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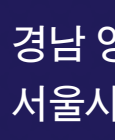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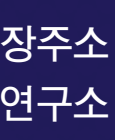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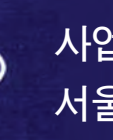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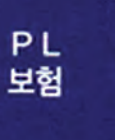
LED조명제조 판매

사무실조명·공장조명·주차장조명·가로등조명·보안조명·터널조명

- LED조명 전사양(특허 전자파 차폐 · 흡입 장치)
- 기존 등기구 LED등 교체
- 전기공사 및 ESCO 전문

대표 박인주(관음사 교도)

사업장주소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284-5  
서울연구소 : 서울시 강동구 명일로 230, 410호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장  
법천사 주교 법 경

밀교연재 **법경 정사가 전하는 『밀교문화와 생활』 (6)**

## 소리[聲]와 밀교수행

### 소리는 소통의 수단이자 의사전달의 도구

**고요한 소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나 시끄러운 소리는  
불쾌감을 야기한다.**

만약 세상에 소리[聲]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조용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 다음에는 생각하기에 따라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소리가 없으므로 세상은 고요 속에 빠져들고 침묵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다툼과 언쟁은 일어날 수 없고 세상은 평화롭기만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답답하고 불편하기가 그지 없을 것 같다. 소통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으로써 소리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말을 알아 들을 수 없고, 내 생각을 전할 수도 없어 세상은 불통(不通)의 천지가 되고 말 것이다. 소리가 없으므로 인하여 인간 세상에서 사라질 물건들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 같다. 전화기가 필요 없고, 자동차 경보음이 나 알람시계도 소용없으며, 음악과 노래가 있을 수 없다. 사랑한다는 달콤한 말도 나눌 수 없다. 그리고 소음측정기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소리가 없으니 감정의 전달은 더욱 어렵다.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따뜻함과 다정스러움은 존재할 수가 없다. 세상만물이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소리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안정감이 있고 고요한 음(音)은  
편안함과 신뢰감, 감동을 준다.**

소리란 파동이 일어나 퍼져 나가는 것으로, 이를 음(音) 또는 음파(音波)라고 한다. 좁은 의미로는 사람의 귀에 들리는 것을 가리킨다. 사람이 아닌 동물들도 청각기관을 갖고 있는데 알아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영역이 종(種)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는 가청주파수라고 하여 대략 진동수가 16Hz에서 20,000Hz 사이의 영역이라고 한다.

주파수가 2만 Hz를 넘으면, 이를 초음파라 하여 사람에게서는 들리지 않는다. 쥐나 박쥐, 돌고래 등은 이것을 감지(感知)할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이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어떤 음일까. 피아노의 중앙 건반을 두드렸을 때 나는 소리가 C음의 주파수인데, 이 주파수가 261Hz라고 하며, 이 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만든다고 한다. 성우의 목소리가 C음에 주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 가장 듣기 좋은 음이요 편안한 목소리이다. 이 보다 소리가 높으면 소음(噪音)이 될 수 있어 불쾌감을 불러 일으킨다. 이 보다 낮은 저음(低音)은 사람들을 오히려 우울하게 만들고, 무기력증을 유발한다고 한다. 안정감이 있고 편안한 소리가 C음이라면, 대화를 하거나 강의, 특히 설법을 할 때, 이 음에 맞추어 목소리를 내 보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편안함과 신뢰감을 주고 설득력을 지닌 음(音)이므로 자주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런데, 소리는 일반적으로 성대(聲帶)를 통해서 전해지는데, 성대를 진동시키지 않고 기관(氣管)에서 나오는 공기로서 소리를 낼 수 있다고도 한다. 이를 공명(共鳴)이라 한다.

이 공명으로 염불을 하거나 진언을 외우면 힘도 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소리를 낼 수 있으며, 듣는 사람도 편안함과 신비감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이는 입을 다물고 단전에서 소리를 끌어내어 입 안 전체에서 소리를 내는 것이다. 목 안에서, 즉 성대에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뱃속 깊은 곳에서 공기를 토해 내는 소리이다.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 거의 다물다시피하여 입 안에서 소리를 내는 것이다. 마치 굴 속에서 소리를 내는 것과 같다. 복화술(復讐術)도 이와 같은 원리이다.

불교의 명상에서도 소리를 이용하고 있다. 음악명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소리를 통한 명상도 이미 행해지고 있다. 소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명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비명상, 웃음명상, 자에명상 등 종류가 다양하다. 소리를 통한 명상은 목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가야금, 거문고 등에서부터 명상음악까지 범위가 넓다. 모두 소리로서 삼매에 드는 방법이다. 소리명상으로 삼매에 들고, 이를 통해 몸과 마음은 힐링이 된다.

**소리(聲)를 통한 밀교의 수행법은  
음성염송과 금강염송이 있고,  
자(字)와 성(聲)의 관법이 있다.**

밀교에서도 소리는 중요하다. 특히 진언다라니를 외을때 소리는 중요하게 쓰인다. 진언 염송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음성염송(音聲念誦)·금강염송(金剛念誦)·삼마지염송(三摩地念誦)·진실염송(眞實念誦)이다.

이 가운데 음성염송은 소리를 내어서 진언을 외우는 것이다. 소리를 넘으로써 얻는 효과는 크다. 그래서 염불에서도 고성염불 십대공덕이라 하여 고성으로 외우는 염불의 공덕을 열 가지로 나열하고 있다. 염불은 소리를 내는 것이 핵심이다.

소리가 없으면 염불이라 할 수 없다. 소리를 넘으로써 염불삼매에 들게 된다. 청명염불로써 깨달음에 이른 선사들이 많은은 고성전(高僧傳)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독경도 마찬가지이다. 경전을 소리를 내어서 외워야 독경(讀經)이며 독송(讀誦)이라 할 수 있다. 소리는 이처럼 불교의식에서 중요하게 작동된다.

밀교에서 소리를 크게 내어 진언을 외우는 음성염송과 입을 다물고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아주 작은 소리를 내어 진언을 외우는 금강염송(金剛念誦)은 가장 유익한 진언염송법이라 할 수 있다. 집에서 혼자 진언을 외울 때는 음성염송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서원당에서는 마음 속으로 진언을 외우는, 금강염송으로써 염송삼매에 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무엇보다 진언을 외울 때는 자신의 염송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염송소리에 자신이 집중하는 것이다. 이를 '대일경'에서는 자(字)·인(印)·형(形)이라는 본존삼종관(本尊三種觀) 가운데 자(字)의 관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字)의 성(聲)에 대한 관법이라 설하고 있다.

자(字)와 성(聲)에 대한 관법이란 진언에 집중하고, 진언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를 '위빠싸나-씨피'라 한다. 소리로써 진언행자의 수승한 염송법을 익혀나가기에 기대한다.

**정성준 교수의 후기밀교**

## 정신과육체의 경계를 열다



정성준 교수  
동국대 티벳대장경  
역경원 선임연구원

**붓다가 12지연기를 순관·역관할 때  
무명의 정신으로부터 육체의 물질계가 전개되는  
최고의 비밀을 열었던 순간이 존재했을 것이다**

밀교를 공부하는 것이 한때는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밀교를 음산한 주술처럼 간주하거나, 성과 관련된 비속한 의식으로 백안시 하는 대중과 마주하는 것은 다반사였다. 신상을 소개하면서 밀교를 전공한다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울 때는 후기 대승불교를 전공한다고 말을 슬그머니 돌리는 것은 오랜 세월을 통해 익힌 개인의 수법이다. 개인적으로 밀교를 공부하게 된 연기는 인도불교사를 정리하면서 시작되었다. 하라가와아키라의 〈불교연구입문〉을 연구서의 지침으로 삼아 숙독하면서 8세기 이후 인도불교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을 알게 되었다. 인도불교를 지배하던 유수한 교파를 중관파 유식으로 요약한다면, 후기 대승불교를 지탱하던 양 수레바퀴는 밀교와 인명학이다.

실천의례로 이루어진 밀교와 인간이성의 정점을 보이는 불교논리학의 공존이 처음에는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돌이켜 보면 자아와 현실세계의 본질에 대한 분석과 논리가 최종적으로 인간생명, 정신의 전환으로 귀결된다는 주장은 인도 유가행파의 한결 같은 입장이다. 이것이 역사적 관점에서 밀교를 대승불교 유가행파의 연장에서 이해해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인도 후기밀교라고 해서 기존의 불교가 닿지 못한 미지의 개척지가 존재하거나, 신비로운 영역을 배일에 감추어 둔 채 남겨두는 그런 것은 없다. 오히려 밀교시대에는 현교의 전승에 대해 불확실하게 남겨둔 모든 이론이나 수행체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예를 들어 석가모니붓다가 12지연기를 순관, 역관하여 성도에 이르렀다는 문제를 건넜고, 왜 새벽별을 보고 오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집요하게 연구한 결과 인도 후기밀교의 수행체계가 완성되었다. 〈법화경〉〈수기품〉에서 제자들이 훗날 성불에 이를 때 왜 정도를 건설해 중생들을 제접하고 성불에 이르게 하는지에 대해 후기밀교는 의문을 제기하고 현실적인 수행체계로 완성시켰다.

불교를 공부하다보면 모든 시대적 교학은 과거와 미래의 흔적과 향방에 연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석존의 가르침에 입각한 교리나 실천배경 없이 존재하는 불교의 화제와 소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이것이 밀교의 정신이자 생명력이다. 역사적 의혹의 연결고리에 대해 한참이나

고민하다보면 왜 불교사가 밀교로 귀결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게 된다. 붓다의 12지연기는 무명·행·식·명색·육처·촉·수·애·취·유·생·노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간의 무명이 지닌 미혹과 갈애가 삼유의 존재육구에 의해 육체적으로 전생하는 과정을 밝힌 것이다. 붓다가 12지연기를 순관·역관할 때 무명의 정신으로부터 육체의 물질계가 전개되는 최고의 비밀을 열었던 순간이 존재했을 것이다. 다시 육체로부터 정각의 정신계로 환원할 때에는 육체의 존재를 영원히 닫는 비밀스런 체험도 있었을 것이다.

붓다가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초기불교의 수식관은 호흡을 통해 인간의 정신세계를 탐험하는 것으로 사념처관과 연계에 가장 빈번히 설했던 수행법이었다. 인간이 정신계로부터 육체와 물질적 영역을 갈구해 육체로 진출하는 의식적 움직임의 제시는 현대 천문물리학의 블랙홀 이론과 상당히 닮았다. 빛도 빠져 나올 수 없는 중력의 한계는 마지막 단계에서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블랙홀이 존재했던 수평계를 넘어서 새로운 우주의 사공을 열게 된다. 인간의 육망적 움직임은 무색계로부터 육체계의 하향적 방향성을 지니지만, 공성의 관조를 통한 존재욕망의 해체는 육체계로부터 무색계의 상향적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 부파불교시대에는 붓다의 교설을 정리해 색계와 무색계를 구성하는 구차제정의 정신적 수평계를 제시하였다.

8세기말에 활동한 〈비밀집회판트라〉유파로서 즈나나빠다는 석존의 가르침에 대한 통렬한 자각을 시대적으로 요청한 장본인이었다. 즈나나빠다의 생이차제 수행은 정신계로부터 물질계로 나아가는 찰나, 정신을 육체적 진화로 연결시키는 따라가에 근간을 둔다. 밀교 수행자는 따라가에 대한 의식적 집중을 통해 육체의 부정된 욕망을 통제하고, 풍과 맥관의 존재를 통해 12지연기의 숨겨진 비밀에 비로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즈나나빠다는 후기밀교수행의 소재들에 대해 탐구하고, 비밀한 주석들을 남김으로써 석가모니붓다의 12지연기설을 현실의 수행이론으로 완성한 인도 후기밀교 최고의 스승이었다.

\*제집: 스승이 학생들을 문답을 통해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

# COMPOSE COFFEE



## 변화하는 카페 문화의 방향성을 지휘하다

### 컴포즈커피 COMPOSE COFFEE

## 부산 가야점

신선한 맛 (Taste)  
부담없는 가격 (Cost)  
기존 사이즈 2배의 양 (Amount)



대표 김우정(자석사교도) 010. 2441. 1252

부산시 부산진구 대학로 13



동해중 소식

# 동해중 어머니 독서회 탐방

## 책읽는 문화 확산과 책을 통한 인성교육 함양



▲ 동해중 어머니 독서회 모임

학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중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녀들의 모습은 아마 책을 읽고 있는 자녀의 모습일 것이다. 이렇듯 세상의 모든 학부모들은 책을 읽고 있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면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가 희망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러한 사회 정서를 바탕으로 동해중학교 학부모들은 학부모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책읽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가정에서부터 학생들의 독서의욕 고취와 책을 통해 인성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독서습관화 만들기에 나서게 된 것이다. 동해중학교 어머니 독서회의 첫 출발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창기 18명으로 시작된 어머니 독서회 회원은 2017년 현재, 학급 및 학생 수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101명의 매머드급 전국 최고의 어머니 독서회로 성장하였다. 어머니 독서회의 근본 목적은 학교와 학부모와의 소통력을 높여 학교에 대한 신뢰도를 공고히 함은 물론 원활한 교류 사업을 통해 학교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나아가 독서의 효

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독서 문화 창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책읽는 문화를 유도하고 자녀들의 독서 의식을 함양함에 있다. 그러한 실천 방법으로 어머니 독서회를 통해 학생들이 읽는 필독도서 선정 및 추천에도 참여하고 봉사활동도 실천하며, 학교의 아름다운 도서관 만들기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어머니 독서회에서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관 하더라도 3,000여권이 넘는다. 또한 자녀와 함께 하는 선진학교 방문 행사를 통한 목표심 함양 교육에도 적극 참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목표의식 고취 교육에도 매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유명 문인들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실시하고 학부모 코칭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을 듣기도 하며 학교에서의 교사들을 활용한 영역별 전문가를 통한 학부모 연수, 학교장의 독서에 대한 다양한 독서 특강 및 자기계발계획서 작성법 연수도

함께 실시하여 학부모들의 전문적 역량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운명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서 어머니 독서회 회칙을 제정하고 참석 명부를 구조화하고 내실있게 정리하여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한 체계적 관리로 가장 모범적인 학부모 모임이 되고 있다.

어머니 독서회 참여로 학부모들의 관심과 권장 정책의 결과로 지금까지 전국 과학탐구 독서토론 대회 대상 2회, 부산광역시 교육청 주최 독서경진대회에서 대상 6회, 한국민주시민 교육주최 학생토론대회 대상 1회, 전국 학생통일 글짓기 대회 동래구 토론대회 최우수상 1회, 새마을문고 독후감 쓰기 대회 부산대회 은상 등을 수상한 것은 이러한 학부모의 독서에 대한 관심과 소통의 교육방법이 학생들의 독서 내실화로 다가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머니 독서회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정에서도 독서 문화가 정착되도록 ‘거실을 서재 운동’과 ‘책 선물하기 운동’, ‘서점 방문하기 행사’ 대한민국 분야별 최고의 유명인사 초청 특강 등을 통한 조용한 독서운동으로 최고의 어머니 독서회 모임으로 발전시킬 전략을 가지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이다.

# 사회복지재단 산하 어린이집 다양한 현장 학습

## 청계숲 염색장 및 반포지구대, 잠원동 주민센터 전학



총지중 위탁 기관 포레스타 7단지 어린이집과 잠원 햇살 어린이집은 6월 다양한 현장 학습을 진행했다. 천연 염색장을 방문한 포레스타 7단지 어린이집원아들은 자연의 재료를 이용한 손수건 염색 체험 활동을 하고, 여러가지 곤충 및 동물을 관찰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다.

잠원 햇살 어린이집은 지역사회 연계 활동의 일환으로 반포지구대와 잠원동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경찰서와 비슷하지만 하는 일이 다른 지구대 방문을 통하여 두 기관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학습하였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과 우리 생활과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고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 종교인 과세, 이젠 시대적 소명이다

## 근로소득 아닌 기타소득 방식 같은 대안으로 불필요한 마찰 최소화하는 과세 방안 마련 필요



김주일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장

문제인 정부 들어서 종교인 과세 시행 때문에 다시 시끄럽다. 새로 임명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결정된 것이므로 정부는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6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종교인 과세 질의에 “내년 시행이라 준비중”이라고 거듭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종교인의 소득 파악이 어렵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준비가 덜 된 상황이라는 이유로 종교인 과세 유예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종교인 과세를 2020년으로 2년 더 미루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해 논란이 됐다. 이런 정부 요직의 부처장들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로 맞서고 있어 일각에서는 50여년 만에 어렵게 입법화된 종교인 과세가 시행 6개월여를 앞두고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그렇다면 종교인 과세는 어떤 취지로 시행되며, 목적은 무엇일까? 시행도 되기 전 계속 논란이 가중되는 것일까?

우선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2015년 12월 국회의 관련법 통과 당시 첫 시행서 오는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로 2년간 유예기간을 줬 2018년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다. 그런데 시행을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 부족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를 미루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어느때보다 높다.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도 응답자의 70% 이상이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김진표 위원장은 입장을 바꿔 6월 7일 “종교인 과세는 신속히 시행되는 것이 좋으며,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 하겠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입장파와 같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종교계와 약속한 것이어서 소득세법 개정안은 낸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를 계속 반대한다면 개신교 신자인 김 위원장이 특정종교를 옹호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며, 문제인 정부의 불

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재 종교별로 보면 불교와 천주교는 종교인 과세에 찬성인 반면, 개신교는 반대인 상태다.

어쨌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종교인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될 것 같아 다행이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당시 이낙선 국세청장이 필요성을 처음 거론했다가 종교계의 반발로 무산된 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거론된 난제 중 하나다. 현행 국내 세법에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했다. 국회서 법을 바꿀 필요도 없이 세법 시행령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과세할 수 있어 정부의 의지와 종교계의 협조만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시행할 수도 있다.

스님 신부 목사 등 국내 성직자는 약 40여 만명으로 추정된다. 법령상 납세의무가 생기더라도 소득이 적은 상당수 종교인은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거나 극히 소액만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종교인 과세를 통한 추가 세수 규모가 연간 1000억 원 정도로 전체 세수 확대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소득

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과세의 의무는 종교계라고 해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

종교계 일부에서는 과세 원칙에는 찬성하면서도 성직자의 수입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근로소득세를 물리는 데 대해서는 거부감을 나타낸다. 정부는 종교인의 소득, 재산수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면서도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는 과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세와 관련된 ‘소득 분류’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 같은 방식을 택한다면 실질적인 과세 효과는 동일하면서도 종교계의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준비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미비점을 보완해 가며 법대로 시행하면 된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에 외야말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오랜 과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종교인들도 팔을 걷어 부치고 적극 나서길 바란다. 성직자라도 일반 국민과 동등한 의무를 이행할 때 더욱더 존경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군종특별교구, 호국영령 천도법회 봉행

## 6월 1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 스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는 호국영령 천도법회를 봉행했다.

한국불교 전통의례 전승원 스님들의 영가 청혼과 천도의식을 시작으로 호국영령 추모법회가 진행됐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치사를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서 오늘 이 장엄한 천도의 법석에 오셔서 무량한 열반락을 누리길 손 모아 바란다”고 축원하

며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렸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추모사에서 “이름도 몰랐던 동방의 작은 나라 코리아, 대한민국에서 그분들은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쳤다”며 조국과 민족 앞에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렸던 이들을 ‘관세음보살’의 현신이라고 찬탄했다.

구홍모 국군불교총신도회장은 발원문을 통해 “앞서 간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경건히 합장하며,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간절히 서원하며, 겨레와 나라를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겠다”고 발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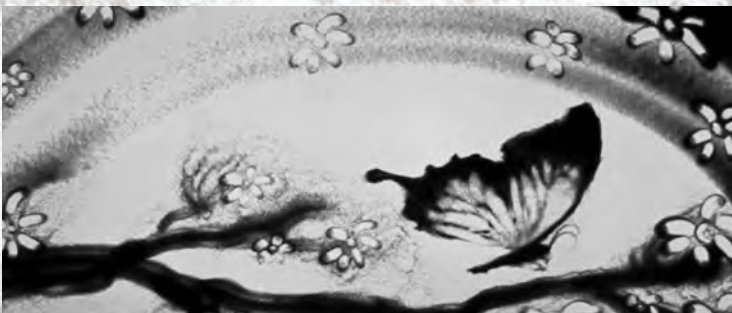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비롯해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초대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구홍모 국군불교총신도회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 백승주 국회의원, 윤종필 국회의원, 박정기 국군예비역불자연합회장, 김현집 국군불교총신도회 전 회장, 민병덕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등 1000여 명이 동참했다.

# 샌드아트란

샌드아트는 모래를 이용한 예술장으로서 모래 알갱이 하나 하나에 이야기를 담아 회로애락의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입니다.

샌드애니메이션은 빛이 들어오는 라이트박스 위에 모래를 손으로 뿌리고, 지우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예술의 한 분야로서, 라이트박스에서 비추는 빛과 라이트박스 위의 모래가 음영을 만들어 내며 그림이 되는 원리입니다. 빛과 손과 모래의 예술로 촬영한 장면을 빔 프로젝트를 통해 스크린에 비추어 보이며 퍼포먼스 공연을 하기도 하고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여 영상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 샌드아트는 인생이다!



## ■ 전문자격증 소개

|               |                                                              |
|---------------|--------------------------------------------------------------|
| 샌드아트 1급 전문가   | 대학교 출강 및 학원, 교습소의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며 1, 2급 전문가 과정을 지도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 |
| 샌드아트 2급 전문가   | 유아, 초·중·고등 교육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고급 수준                             |
| 샌드아트 3급 전문가   | 샌드아트 라이브 공연, 영상 작품 제작이 가능하며 유아 대상의 체험 강습이 가능한 수준             |
| 자격증 취득 후 직무내용 | 샌드아트 전문가 자격 검정에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학력, 성별, 연령 제한없이 응시할 수 있다.        |

## ■ 샌드아트의 진로 및 활동 분야

|                                     |                                          |
|-------------------------------------|------------------------------------------|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전국 학교의 방과 후 교실 운영 | 아동복지시설, 문화센터, 공부방, 사찰 등 기타 지방자치단체 방과후 시설 |
| 방과 후 돌봄센터, 보육센터,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공부방   | 개인수업 등 프리랜서 활동, 창업                       |

# 샌드아트는 감동이다!



# India Load

## 단비의 인디아 로드



▲ 인도의 대표적인 건축물-타즈마할

인디아 로드 연재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2016년, 오랜 숙원이었던 인도행을 택한 한 여행자의 이야기입니다. 인종, 언어, 음식, 종교 그 어느 하나 같지 않게 느껴지던 많은 것들이 인도에서는 인도만의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텔리의 작열하는 태양, 황금사원 안에서 울려 퍼지던 신을 향한 간절한 노래, 히말라야의 눈부신 설산과 타국에서 온 여행자에게 관심 많은 친절인 인도인들까지.

인도 땅을 밟아 가슴에 담은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씩 풀어내고자 합니다. 기간은 총 40일, 북부 히말라야를 시작으로 수도인 뉴델리를 지나 서쪽의 사막지대인 라자스탄까지 중북부의 거점 도시들을 주로 여행했습니다. 이 여정 안에서 보고 만난 새로운 인연들에 대해 소개 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 인도식 정식-탈리



▲ 갠지스강 풍경-바라나시

### 덕광정사와 함께 四君子 배우기④

### 梅蘭菊竹

①

정엽



②

반엽



③

절엽



④

권엽



#### 2 잎그리기

- 1) 정엽(正葉): 정면으로 보이는 잎
- 2) 반엽(反葉): 뒤를 향한 잎
- 3) 절엽(折葉): 정면 잎 밑에 뒷면이 보이는 잎이 같이 있는 잎(껴여 있는 잎)
- 4) 권엽(捲葉): 말려 있는 잎



덕광(실보사 주교)  
울산미술대전,  
신라미술대전,  
경남미술대전,  
한국화 부문 수상

### 불/교/설/화

## 조개속에 나타난 관세음보살



설화: 조귀자  
삽화: 김흥균

지금으로부터 서기 669년의 일이다. 중국의 당나라 문종황제는 불도에 귀의하여 신심이 늘어난 분이였다.

중궁전에 법당을 따로 정하여 놓고 관음상을 모신 뒤에 조석으로 예배하여 기도를 올리고 불도공부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졌다. 게다가 유정선사를 왕사나 다름없이 섬기고 스님의 말이 라면 전적으로 믿었다.

황제는 이와 같이 신심이 강한 까닭으로 국가에 대사가 있을 때면 꼭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여 현몽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 현몽에 의하여 일을 처리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저절로 술술 풀리게 되어 소원대로 되는 일이 많았던 것이다.

황제가 불교에 귀의한 뒤로부터 어육(魚肉)의 반찬을 멀리하고 간소한 찬으로서 식사를 하여왔는데, 그 가운데 조개만은 특별히 식성을 끝었다 하여 국도 끓여먹고 볶아 먹기도 하고 혹은 날 조개를 쪄서 양념을 하여 먹기도 하는 등 끝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날 아침 수랏상에 조개를 지저 올렸는데 조가비가 벌어진 것을 하나하나 들어서 살을 떼어 초장에 찍어 먹는 맛이 보통이 아니었다.

조개들 가운데 유독 껍데기가 벌어지지 않은 놈이 있었다. 짓가탁으로 아무리 뒤적거리려도 껍데기는 열리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황제는 손으로 집어서 힘을 주어 쪄냈더니 짝 소리가 나며 쪄졌다. 그런데 이게 웬 조화인지 조갯살점이 변하여 관음상을 나타내며 광명을 발하는 것이 아닌가.

틀림없이 상아뼈로 조성한 관음상이었다. 이목구비가 수려하고 장엄한 풍채도 앓은 좌상이었다. 마치 누가 조갯살을 빼돌리고 일부러 관음상을 넣은 것 같았다. 그러나 누가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할 리도 만무하거나와 조금 전까지도 조갯살이 붙어있지 않았단가?

참으로 수수께끼 같아서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황제 혼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종남산에 있는 유정선사를 불렀다.

“스님,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조개 속에서 나왔으려. 조개 속에서 진주가 나온다는 말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습니까, 불상이 나온다는 말은 고금을 통해 듣지도 못하고 보

지도 못하였는데 이렇게 관음보살상이 나왔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였다.

유정선사는 태연하게 말하되 “이것은 32상으로 응화신(應化身)을 나타내어 중생을 교화하시는 관음보살의 화신(化身)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이것을 어떻게 32응신의 화신이라고 하십니까?  
“부처님은 백역화신을 나타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백역화신 가운데 조개로 나뉘는 화신인데 어찌 없겠습니까? “관음보살은 보살이요, 부처가 아니거늘, 어찌 백역화신을 나타내다고 말씀하시나요?” “관음보살은 과거에 이미 성불하신 부처님이건만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대자대비하신 원력으로 보살이 되셨지요! 이런 것이 모두 경전 가운데 있거늘 폐하께서는 어찌 의심하십니까?”

“관음경 보문품에 보면 관음보살이 각각 그의 형상을 나타내 제도시킬 중생들의 각각의 모습으로 설법을 하신다고 하였는데 이 조개는 어떻게 나타내게 된것입니까?”

“폐하께서는 이 조개 속에서 관음상이 나온 것을 아무 사람이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보통으로서는 볼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이것을 관음보살의神通변화라고 믿으십니까? 아니 믿으십니까?” “짐도 처음 보는 희귀한 일이라 관음보살의神通변화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폐하께서는 관음보살의 설법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법문을 들으신 것이 아니면 어찌 믿으십니까? 귀로 듣고 믿으나 눈으로 보고 믿으나 보고 듣는 건문이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관음보살은 설함이 없이 설하시는 무설이설(無說而說)이온 지라. 폐하께서는 들리지 아니하여도 들은 것으로 생각하시어서 불문이문(不聞而聞)이 되셔야 합니다.”

문종황제는 유정의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아 기뻐하며 나라에 칙령을 내려 어느 절에든지 관음상을 모시게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조개 속에서 나온 관음상을 산관음이라 하여 원불로 모시고 호신불을 삼았다.



용인 3군사령부 범당 / 5포 7포



계룡시 목조건축 행불선원 / 이의공



곤지암 회향선원 / 주심3포



계룡시 목조건축 행불선원 / 이의공

덕을 황을 섭

Tel 010.9387.1080

E-mail 1802hwang@hanmail.net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86 경은빌딩 6층



## 2017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행정자치부와 도서문화연구원 공동으로 선정



▲ 찾아가고 싶은 섬 33개에 선정된 거문도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와 도서문화연구원이 공동으로 선정한 '2017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이 발표됐다. 선정된 33개의 섬은 휴가를 계획하는 여행자들의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도록 5가지 테마를 제공한다.

‘놀-섬’은 단체 야유회, 활기찬 가족여행 등으로 놀기 좋은 섬이다. ‘쉼-섬’은 휴가철 채충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조용하게 휴양할 수 있는 섬이다.

‘맛-섬’은 섬만이 지닌 특별한 먹을거리가 풍성한 섬이고, ‘미지의-섬’은 풍경과 자연경관이 아름답지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신비의 섬이다.

마지막으로 ‘가기 힘든-섬’은 인도하면 쉽게 나올 수 없는 섬으로 모험심을 자극하는 곳이다.

33개의 섬은 섬 전문가, 관광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해당 지자체에 연락하면 교통편이나 숙박 정보 등의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찾아가고 싶은 섬’에 휴가철 많은 이들이 즐겁게 방문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관광공사, 지자체,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다양한 홍보와 이벤트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구석구

석’ 홈페이지 내에 ‘2017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코너를 개설 운영한다. 또한 홈페이지 내에서 이용자가 보고 싶은 한 개의 섬을 선택해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주는 이벤트도 개최한다.

섬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부안 위도에서는 ‘달빛아래 밤새 걷기’ 행사와 고흥 시호도에서는 ‘원시 체험의 섬’이라는 주제로 8월 한 달간 섬에서 가족캠핑을 개최한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홈페이지, 팸플릿 등을 통해 휴가철 섬 여행을 계획하는 여행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정보를 각 섬에 맞게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 ‘헬로마켓’은 스마트폰 앱 플랫폼에 ‘2017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이라는 메뉴를 개설, 주민들과 관광객의 물품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관광객들은 이곳을 통해 섬 주민들이 제공하는 숙소를 쉽게 확인하고 대여할 수 있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우리나라의 섬들은 하나하나가 특색있는 매력을 갖춘 보물섬”이라며 “행정자치부는 우리 섬의 아름다움을 더욱 널리 알려 보다 많은 분들이 섬을 찾고 즐기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윤달은 좋은 달

왜 윤달이 생기는 것일까? 윤달에는 무엇을 했을까?

벽룡사 주교 법일

양력 기준으로 1년 길이는 365,242일이 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음력과 양력의 차이는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윤달을 넣어서 1년의 길이를 맞추게 된다.

음력과 양력의 날짜가 다른 이유는 날짜를 정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음력은 달을 중심으로 한 태음력으로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로 29일 또는 30일로 한 달을 정하고, 태양이 중심인 태양력은 양력이라 한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가 30일 또는 31일로 한 달을 정하기 때문에 태음력과 태양력이 서로 다르다.

24절기는 음력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태양의 주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양력과 어긋나지 않게 배치한 윤달을 포함하여 만들어 사용하므로 음력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음력과 양력이 섞인 태음태양력을 사용하였다.

태양력의 기원은 이집트로 알려져 있다. 이집트에서는 일찍부터 나일강이 범람할 때면 동쪽 하늘의 일정한 위치에 시리우스별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냄으로써 태양력을 만들 수 있었다.

BC 18세기경 이집트인들은 1년을 365일로 하고, 이것을 30일로 이루어진 12달과 연말에 5일을 더하는 식으로 달력을 만들었다. 양력에는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우스력이 있다. 이집트인의 달력이 로마에 전해져 율리우스력을 만들어 썼으며 이후 오차가 발견되어 그레고리우스가 13세기에 고쳐서 지금의 달력인 그레고리우스력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1896년 1월 1일부터 고종황제의 명령에 따라 양력을 쓰게 되었다.

정확한 1년은 365일 하고도 5시간 48분 46초이다. 해마다 5시간 48분 46초가 남게 된다. 그 남은 시간을 4년 동안 모으게 되면 24시간이 만들어져 4년에 한번 하루가 더 있는 2월 29일이 생긴다. 이렇게 모인 날들은 한 달이 되는 19년 7개월에 윤달이 나오게 된다. 이를 ‘19년 7윤법’이라 한다. 어떤 때에는 음력 3월(2012년)이 윤달이었다가 또 어떤 때에는 음력 9월(2014년)이 되기도 하기에 일정한 달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윤달은 윤월閏月, 윤삭閏朔, 윤여閏餘 등으로 불리는 귀신이 없는 달이다. 윤달은 아냄으로써 태양력을 만들 수 있었다.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쉬는 달로서 이때에는 불경스러운 행동도 신의 벌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다. 문화재청 자료에 보이는 윤달의 세시풍속에는 한 달이 가외로 더 있는 달이기에 모든 일에 부정을 타거나 액운이 끼이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다. 『동국세시기』에는 윤달이 결혼하기에 좋고, 수의를 만드는 데에 좋으며 모든 일에 꺼릴 게 없는 달이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집수리나 이사, 묘지 이상, 수의 만들기 등 평소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집안의 일들을 마음 놓고 하였다. ‘광주 봉은사奉恩寺에는 윤달이 되면 서울 장안의 여인들이 다투어 와서 불공을 드리며 돈을 탑 위에 놓는다. 이렇게 하면 극락세계로 간다고 하여 사방의 노파들이 분주히 달려와 다투어 모인다. 서울과 외지의 여러 절에서도 대개 이런 풍속이 있다.’고 『동국세시기』는 기록하고 있다.

충부이남 지방에서는 ‘성돌이’, ‘성뿔기’ 또는 ‘답성놀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신앙의 ‘탑돌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극락으로 가 교차하는 염원을 담고 있다.

## 2017 여우락 페스티벌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국립극장(극장장 안호상)은 오는 7월 7일(금)부터 22일(토)까지 2017 국립극장 ‘여우락(락) 페스티벌’ (예술감독 원일)을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여우락’은 한국음악 기반의 과감한 시도로 주목 받는 음악가들과 다양한 영역의 예술가들이 참여해 온 우리 음악 페스티벌이다. 2010년 시작 이래 4만 8천여 관객이 ‘여우락’을 찾았으며, 지난 총 7회 행사의 평균

객석점유율은 95퍼센트를 기록했다. 동시대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 ‘언제나 젊음’ 음악으로서 살아 숨쉬기를 원하는 한국음악계의 끊임없는 고민과 실험의 현장으로서, 관객과 평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셈이다.

2017 ‘여우락 페스티벌’의 주제는 ‘우리 음악의 자기진화’. 동시대와 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생하고 성장해 온 우리 음악의 현재가 2주간 총 15개 공연을 통해 밀도 높게 펼쳐진다.

올해 ‘여우락’의 예술감독은 바람꽃·푸리의 리더로서 ‘우리 음악의 자기진화’, 그 한 축을 담당해온 원일이 맡는다. 원일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을 지내며 국악관현악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주도하기도 했다.

예매·문의 국립극장 홈페이지(www.ntok.go.kr) 또는 전화(02-2280-4114)

## 설악산 케이블카 투자심사 규칙 위반



▲ 설악산 케이블카

강원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위반하고 구매계약도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체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양양군수에게 엄중 주의를 주도록 촉구하고, 양양군수에게는 구매계약 관련자 3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19일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벌여 감사를 청구한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양양군은 2015년 3월 행정부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기도 전에 일부 업체들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규정을 어겼다.

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오색삭도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양군은 2016년 3월 한 업체와 ‘오색삭도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7월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문화재청은 같은 해 12월 ‘삭도 건설공사와 운행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 문체부, 지역문화 자치 실현 차세대 문화활동가 양성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따라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할 지역주관기관 7개소(권소사업 기관 포함)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지난 5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했다. 지역 문화기관의 많은 관심 속에서 15개 기관이 이번 공모에 참여한 가운데, 문체부는 최종적으로 ▲경기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광주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울산문화재단 선정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은 앞으로 2년간 해당 지역을 비롯한 권역 전반을 아우르며 지역문화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

받는다.

아울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정만)은 사업주관기관을 맡아 이번 선정된 각 지역의 기관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다.

각 지역의 양성 기관은 지역별로 특화된 세부교육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선발해 교육한다.

또한 지역 기관의 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정만)이 진행하는 문화리더과정도 수강한다. 지역별 교육과정은 실무 워크숍, 현장 사례 연구, 현장실습 인턴십 과정 등을 포함해 총 5개월여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문화리더과정은 전문 분야에 대한 수준 높은 강의와 토론 워크숍, 현장교육 등으로 구성, 운영된다.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 바라밀지역아동센터

질 높은 복지과 교육의 장으로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곳



▪ 모집대상 : 초등학생(1학년 ~ 6학년), 중학생

▪ 모집정원 : 정원 19명 내

▪ 운영시간 : 학기중 - 오후 1시 ~ 오후 7시

방학중 - 오전 10시 ~ 오후 7시

부산시 동래구 시일로 19-9번지  
(명륜동, 정각사 내 별관 1층 바라밀지역아동센터)



# 참된 나를 찾는 여행

제4회 청소년 바른인성형성 프로그램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모집기간** 2017년 07월 03일 (월)  
~ 12월 17일 (일)

**모집대상** • 초등학생(4학년 이상) / 중·고등학생  
• 팀으로 참가(5~8명)

**참가방법** 각 사원 주교 및 행사 접수처 문의  
☎ 02-552-1080~3  
✉ j-yeoni@hanmail.net

**여행내용**

- 1 5~8명이 한팀이 되어 1박 2일간 함께 떠나는 여행
- 2 팀도 자유롭게 장소도 내맘대로
- 3 참가자 1인당 8만원 지급
- 4 멘토(성인) 1명 동반 필수
- 5 여행참가자 한마음캠프 참여 가능 (참가비 무료)

주최 불교총지중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 ★  
**한마음  
캠프**

일시 ▶ 추후공지 (겨울방학내 2박3일 예정)  
장소 ▶ 추후공지  
대상 ▶ 나를 찾는 여행 참가자 전원

“여행 후기도 나누고  
문화체험도 즐기세요!”